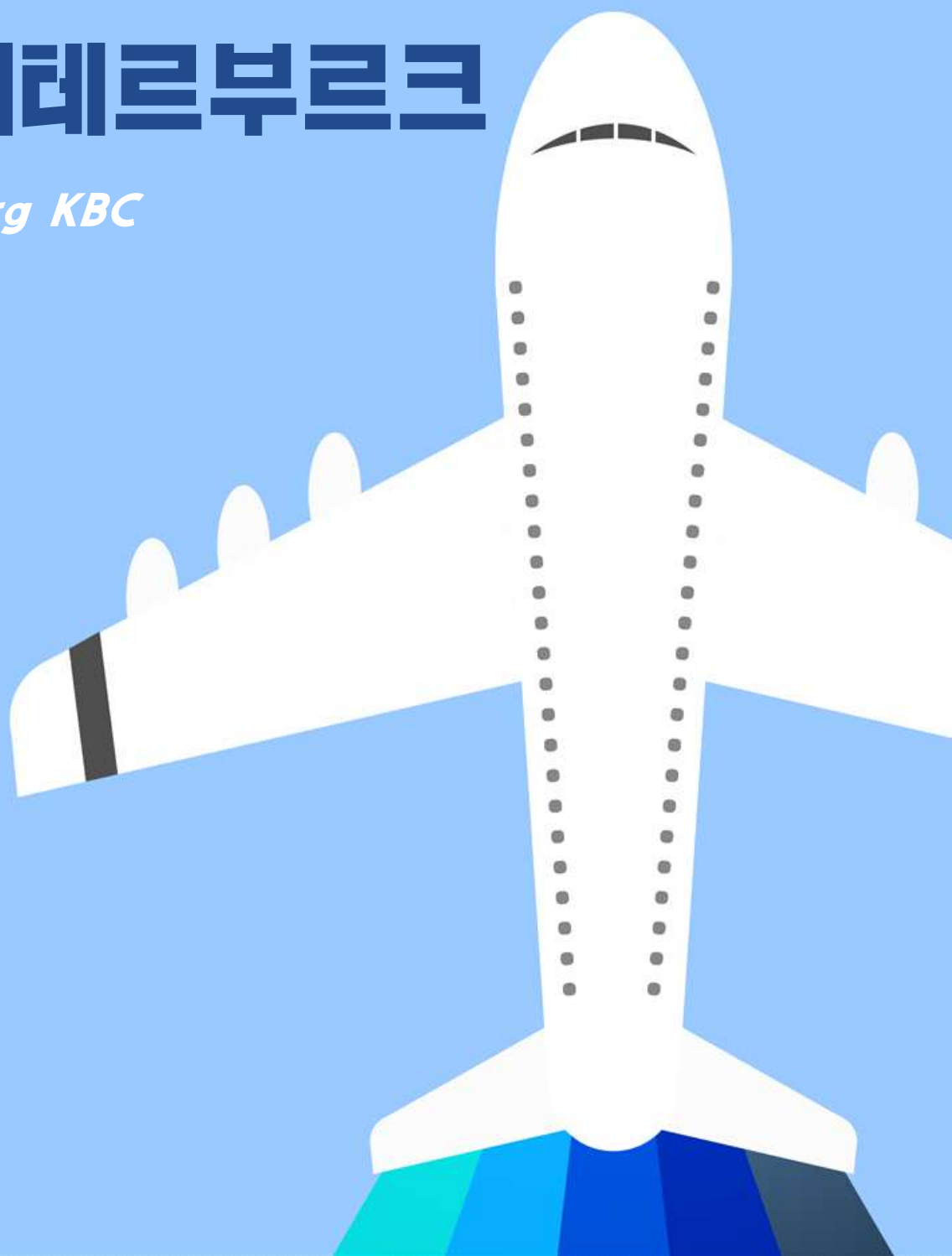


2023 해외출장 가이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St.Petersburg KBC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러시아 개황	1
II. 러시아 시장특성 및 경제현안	3
III. 한-러 경제교류	9
IV. 상트페테르부르크 개황	13
V. 북서관구 개황	22
VI.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30
VII. 무역관 및 주요기관 연락처	34

I. 러시아 개황

1. 러시아 개요

국 명	러시아연방 (Russia Federation)
건국일	1991. 8. 24
총 면적	17,075,200km ² (세계 1위, 반도의 77.1배, 남한 170배, 미국의 1.8배) * 행정구역 : 85개주 (크림 미포함) (연방특별시 3개, 공화국 22개, 지방 9개, 주 46개, 자치주 4개)
인 구	1억4642만 명 (2023.1.1.기준)
수 도	모스크바 (면적 2,561km ²)(2023.1.1.기준) - 인구: 1,310만명 (모스크바 주 포함 시 2,169만명)
민 족	러시아인(79.8%), 타타르인(3.8%), 우크라이나인(2%) 기타 150여 소수 민족 (고려인은 약 150만명 추산)
언 어	러시아어
종교	러시아정교 외 이슬람교,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 등
정부형태	연방제, 대통령제(6년 중임), 의회민주제(양원제, 하원:Duma)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제 7대 대통령; 2018. 5. 8 취임) - 2000~2008년(2회): 3,4대 대통령 / 2008~2012: 총리 / 2012~(2회): 6,7대 대통령

2.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백만 명	146.5	146.8	147.0	147.2	146.9	146.2	145.5	146.4
명목 GDP	십억 달러	1,363.4	1,280.1	1,563.2	1,564.0	1,686.7	1,474.1	1,775.9	2,245.1
1인당 명목GDP	달러	9,099	10,986	10,654	10,655	11,482	10,082.7	12,205.5	15,335.5
실질성장률	%	-2.8	-0.2	1.6	2.3	1.3	-3.0	4.7	-2.5
실업률	%	5.6	5.8	5.4	5.4	4.7	5.9	4.8	3.9
소비자물가상승률	%	12.9	6.5	4.1	4.0	4.3	4.9	8.4	11.9
재정수지(GDP대비)	%	-2.4	-3.4	-2.2	2.6	1.7	-3.8	0.4	-2.3
총수출	억 달러	3,519	2,885	3,343	3,364	4,380	3,317	4,933	5,915
(對韓 수출)	"	113.0	100.0	120.0	175.0	176.0	124.4	173.0	-
총수입	"	1,963	1,798	2,107	2,221	2,580	2,397	2,961	2,591
(對韓 수입)	"	46.8	51.0	69.0	73.0	72.0	71.6	99.8	-
무역수지	억 달러	1,556	1,087	1,236	1,143	1,800	920	1,972	3,324
경상수지	"	658	353	533	1,130	830	325	1,203	2,274
환율(연평균)	루블/US \$	61.34	67.06	58.53	62.43	65.1	72.32	73.65	67.4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20.9	223.1	367.6	313.8	219.2	53.0	384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8.5	325.4	285.6	87.9	319.8	86.6	292	-

자료 : 러시아 통계청(Rosstat),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 EIU, WTA, KITA, World Bank

시기	2020				2021				2022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산업생산량 (%)	2.6	-6.7	-4.8	-2.5	-1.4	9.6	6.0	7.1	5.1	-2.6	-1.2	-3.0
원유생산량 (백만 톤)	140	124	122	126	129	130	133	137	135.1	128.2	134.6	136.1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2023.3월 기준)

Ⅱ. 러시아 시장 특성 및 경제 현안

1. 러시아 시장 특성

□ 전략적 가치

한눈에 보는 러시아

- 총면적 1.7천만km² (세계 1위, 한반도 77배)
- 러시아내 11개의 시간대



러시아 인구 : 1억4천만명

- 모스크바 : 1.3천만
- 상트 페테르부르크 : 5백만
- 노보시비르스크 : 2.8백만
- 100만명 이상 도시 15개



전체 GDP : 1조5천억달러 (18)

1인당 GDP : \$10,743 (18)

주요산업 : 석유가스, 금속, 석탄

경제성장률 :

-0.2%(16), 1.6%(17), 2.3%(18)

○ 러시아 전략적 가치

거대 수입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EU 인구 2.8억 명의 소비시장 • 한국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다대
유라시아 경제 핵심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 러시아 극동개발과 한국 신북방정책 연계 가능성 다대 •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종단철도(TKR) 실현 가능성 증가
자원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최대 자원 보유 지역, 한국의 유력 자원공급처로 활용 가능 • 자원 개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노동력 보유,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기술 협력 가능성 무궁

□ 경제현황

- 202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에 진입
- 2022년 러-우 사태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 기업들의 높은 시장 적응력으로 당초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예상보다 마이너스폭이 크지 않음

[러 정부 및 국제기관별 러시아 경제전망치]

(단위: %)

구 분	러 경제부	러 중앙은행	OECD	세계은행	IMF	EIU
2016	△0.2	△0.3-0.7	△1.7	△1.2	△1.5	△1.2
2017	0.8	1.1-1.4	0.5	1.4	1.0	1.6
2018	1.5	1.4-1.8	1.4	1.4	1.2	1.5
2019	1.3	0.8-1.3	0.9	1.4	1.2	1.3
2020	△3.9	△4.0-5.0	△7.3	△4.0	△4.1	-
2021	3.8	4.5-4.7	3.5	3.2	3.8	-
2022	△2.9	△2.5-3.5	△3.9	4.5	△2.3	-
2023	△0.8	△1.1-1.5	△2.5	△3.3	0.3	-
2024	2.6	1.2-1.5	△0.5	1.6	2.1	-
2025	2.6	1.5	-	-	-	-

자료 : 러 경제부, CBR, OECD, WB, IMF, EIU

* 주) '23-'25 년 전망: 러 경제개발부, 러 연방 중앙은행 / 기타 기관의 '23년 예상: Fitch (2.0%)

□ 무역 동향

- (총 교역) 2022년 총 교역량은 8,5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상승

[러시아 교역 변화]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증감률)	343.5 △30.93	285.7 △16.84	357.8 25.26	449.9 25.75	422.4 △6.05	338.6 △19.84	493.3 45.7	591.5 19.9
수입 (증감률)	182.9 △36.28	182.4 △0.25	227.5 24.69	238.2 24.67	243.6 △2.14	233.96 △3.96	296.1 26.5	259.1 △11.7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러 연방 관세청(2020년-2022년)

- (수입) 2021년 총 수입액은 2,961억 달러, 2022년은 2,591억 달러 기록
 - 2021년 기준 러 수입 상위국 1-2위는 중국(점유율 : 24.55%), 독일(9.24%) 이 유지, 한국은 4.06% 점유(18%↑, 7위) 기록
 - 2022년 국가별 수입액은 러시아 관세청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으나 1위인 중국 등 러시아의 우호국들의 점유율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1/20
1	중국	52,218	54,120	54,913	72,675	22.22	23.47	24.55	32.3
2	독일	25,510	25,113	23,384	27,348	10.31	9.99	9.24	17.0
3	미국	12,516	13,194	13,035	16,877	5.42	5.57	5.70	29.5
4	벨라루스	12,180	12,687	12,605	15,624	5.21	5.39	5.28	24.0
5	이탈리아	10,580	10,887	7,159	12,985	3.28	3.06	4.38	81.4
6	프랑스	9,558	8,561	8,082	12,204	3.51	3.50	4.12	51.0
7	한국	7,008	8,002	10,196	12,033	4.47	4.36	4.06	18.0
8	일본	8,819	8,961	7,112	9,127	3.68	3.04	3.08	28.3
9	터키	4,216	4,978	5,055	7,143	2.27	2.16	2.41	41.3
10	카자흐스탄	5,296	5,536	5,111	6,513	2.04	2.18	2.20	27.4
	총계	238,151	243,597	233,968	296,086	100	100	100	26.5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러 연방 관세청

- (수출) 2021년 수출액은 4,933억 달러, 2022년 5,915억 달러를 기록
 - 2020년 기준 최대 수출국은, 중국(점유율 : 14.51%), 네덜란드(7.33%), 영국(5.5%), 독일(4.7%), 벨라루스 (4.7%), 터키(4.7%) 이며, 한국(4.15%)은 7위
 - * '20년 기준 대한 러 수출은 전년대비 23.92% 감소, ** 대 영국은 큰 폭 확대
 - 2021년 기준 최대 수출국은 중국(점유율 : 13.79%), 네덜란드(8.54%), 영국(6%), 독일(5.37%), 벨라루스 (4.62%), 터키(4.51%) 이며, 한국(3.75%)은 8위
 - * '20년 기준 대한 러 수출은 전년대비 31.5% 상승, ** 이탈리아는 전년대비 2순위 하락, 10위에 그침.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 및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1/20
1	중국	56,041	56,533	49,146	68,028	13.38	14.51	13.79	38.4
2	네덜란드	43,471	44,789	24,819	42,155	10.60	7.33	8.54	69.8
3	영국	9,706	13,260	18,619	29,647	6.64	5.50	6.01	59.2
4	독일	34,096	28,051	15,929	26,512	4.99	4.70	5.37	66.4
5	벨라루스	21,820	20,490	15,980	22,802	4.85	4.72	4.62	42.7
6	터키	21,345	21,061	23,158	22,266	3.14	6.84	4.51	-3.9
7	카자흐스탄	12,923	14,060	10,071	19,322	3.39	2.97	3.92	91.9
8	한국	17,832	16,356	14,051	18,478	3.33	4.15	3.75	31.5
9	미국	12,505	13,055	10,839	17,538	3.09	3.20	3.55	61.8
10	이탈리아	16,406	14,341	12,468	16,897	3.87	3.68	3.42	35.5
	총계	449,939	422,429	338,632	493,344	100	100	100	45.7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러 연방 관세청

□ 투자유치 동향

- 2020년 투자억조현상(자본금 회수로 추정)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70% 감소, 2021년은 405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년대비 327% 상승 기록
 - 2010년부터 연 500억 달러 투자 상회, 유가하락 및 서방제재(2014년)로 급감
 - 2016년부터 회복세였다가 2020년 단기 하락 후, 2021년 크게 상승
- 누적 기준 국가(지역)별로, 키프로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버뮤다 등 오프쇼어 투자(러 기업 오프쇼어 역투자 가능성)가 크게 차지, 한국은 2021년 누적 기준 17위 기록(약 37억 달러)

[對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총투자액	32,539	28,557	8,785	31,975	9,479	-70.4%	40,450	326.7%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CBR)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Top 10 및 한국순위]

(단위 : 백만 달러)

	2017	2018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월 1일 기준)	
					순위	투자액
1	바하마	네덜란드	키프로스	영국	키프로스	182,303
2	바하마 제도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버뮤다	62,484
3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홍콩	영국	53,482
4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일랜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36,745
5	영국	버진 아일랜드	홍콩	프랑스	아일랜드	34,064
6	스위스	프랑스	프랑스	버뮤다	룩셈부르크	30,414
7	버뮤다	바하마 제도	카타르	저지	독일	25,420
8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바하마제도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제도	24,920
9	프랑스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제도	프랑스	23,714
10	저지	저지	버뮤다	노르웨이	스위스	19,383
-	(25위) 한국	(23위) 한국	(23위) 한국	(21위) 한국	(17위) 한국	3,699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CBR) * 주) 2021년 통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누적 투자 정보

-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는 주로 광업, 도소매업, 제조업임
 - 도소매업은 2013년 이후 급격히 감소추세였다가 2019년부터 회복세
 - 2022년1월1일 누적 기준, 광업이 1위(1,593억 달러), 2위는 제조업(1,120억 달러)
- 지역별로는 중서부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투자가 60% 이상 집중
 - * (모스크바, 칼루가 주) 폭스바겐, 르노, 푸조, 네슬레, 이케아, 미셀린, 마스터푸드, 시트로엥, 미쓰비시, 삼성, LG, 롯데 등 진출, (상트) GM, 도요타, 닛산, 포드, 스즈키, 보쉬, 펄스, 현대·기아 등 진출했으나 현재 다수의 외투기업이 러-우 사태 이후 운영 중단하거나 폐쇄한 상태

[대 러시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투자동향(~'21년 누적)>			<주요 지역별 러시아 투자동향(~'21년누적)>		
순위	분야	투자금액 (USD 백만)	순위	지역	투자금액 (USD 백만)
1	광업	159 345	1	중앙 연방지구	297 178
2	제조업	111 990	2	극동 연방지구	112 994
3	도소매업	103 279	3	우랄 연방지구	81 400
4	금융서비스	100 614	4	북서 연방지구	76 375
5	부동산	30 654	5	시베리아 연방지구	23 265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CBR) *주) 2022년1월 1일 기준

□ 주요 이슈 및 진출전략

- 수입대체산업 정책(제조업 육성),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산업기술협력 GVC 실현 등 전략적인 진출 추진

2023년 진출 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제조업육성 수입대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제조업 육성 정책 활용 양국 RVC(역내가치사슬)확대 ○ 현지화, 합작투자, 기술협력, 수입대체산업 정책 활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신규 유통 활로 확보
언택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택트 경제분야(비대면 상품·서비스)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방역, 블록체인, 5PL 물류 등
산업 R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자재 수요 증가, 단순수입보다 공동생산 등 협력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조선·자동차·공동 R&D 등으로 고부가가치 GVC 참여 확대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분야진출, 수출·유통 다변화 및 고도화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소비재시장 질적 성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식품류의 시장점유 확대, 온라인·홈쇼핑·프랜차이즈 시장으로 소비재 'K-가성비' 창출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정부 중점육성 분야 20개中 한국과 유망협력 분야로 보건의료가 최우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헬스케어, 팬데믹 백신·치료제 개발, 의료기기 등
언택트 GVC/RVC 제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 ○ (GVC/RVC 개편) EAEU 역내 경제구속력 강화, 제조 가치사슬 구축 ○ (보건의료) 팬데믹·국민복지 추구, 스마트 헬스케어 진출 ○ (수입대체) 비제재 대상 품목 위주로 수입대체 품목 진출

Ⅲ. 한-러 경제 교류

1. 한·러 교역동향

□ 교역 총괄

- 팬데믹에 의한 2020년부터 교역 감소 후 2021년 급격히 회복
 - 2021년 對러 수출은 99.8억 달러(44.7%↑), 수입은 174억 달러(63.3%↑)
 - 2022년 對러 수출은 63.3억 달러(36.6%↓), 수입은 148억 달러(14.7%↓)

[2013-2021년 한-러 교역]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증감률)	4.68 (△53.7)	4.7 (1.8)	6.9 (44.8)	7.3 (6.0)	7.8 (6.2)	6.89 (△11.2)	9.98 (44.7)	6.33 (△36.6)
수입 (증감률)	11.30 (△27.8)	8.6 (△23.6)	12.0 (39.3)	17.5 (45.4)	14.5 (△16.9)	10.6 (△27)	17.4 (63.3)	14.8 (△14.7)
무역수지(증감)	-6.6	-3.9	-5.1	-10.2	-6.7(△34)	-3.7(△44)	-7.4	-8.5

자료 : KITA, GTA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출) 2022년 對러 수출은 러-우 사태와 대러 제제로 전년대비 36.6% 감소한 63억3천만 달러를 기록
 - 승용차 및 차량 부품 수출 비중이 약 22% 가량 차지, 철구조물,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 비중도 높고 화장품이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6위 기록
- (수입) 수입도 2022년 기준 전년대비 14.7% 감소한 148억 달러를 기록
 - 수입제품은 원유와 나프타 등의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유연탄, 무연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對러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2021년 韓-러 10대 수출품목>

품목명	수출금액 (USD백만)	증감율(%)
승용차	2,549	71.7
자동차부품	1,509	37.5
철구조물	487	2,188.3
합성수지	476	88.6
건설중장비	425	99.9
화장품	290	19.2
아연도강판	211	40.2
기타플라스틱 제품	175	20.9
선박	139	18.7
의자	119	25.1
총 수출	9,983	44.7

<2022년 韓-러 10대 수출품목>

품목명	수출금액 (USD백만)	증감율(%)
승용차	883	-65.4
철구조물	602	-7.6
자동차부품	518	-5.2
합성수지	440	-1.3
건설중장비	403	-5.2
화장품	287	-1.3
윤활유	229	116.7
기타플라스틱제품	154	-11.9
선박	145	3.6
의료용기기	130	28.2
총 수출	6,331	-36.6

자료 : KITA(MTI 4자리)

[최근 對러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

<2021년 韓-러10대 수입품목>

품목명	수입금액 (USD백만)	증감율(%)
나프타	4,383	72.8
원유	4,270	79.1
유연탄	2,202	30.9
천연가스	1,715	120.8
백금	593	80.7
계	453	14.2
무연탄	363	26.9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99	54.1
고철	267	57.1
우라늄	252	12.2
총 수입	17,352	63.2

<2022년 韓-러10대 수입품목>

품목명	수입금액 (USD백만)	증감율(%)
유연탄	5,043	128.9
원유	2307	-46.0
나프타	1594	-63.6
천연가스	1481	-13.7
무연탄	643	77.3
계	472	4.2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408	35.0
명태	344	38.9
합금철	190	-20.5
우라늄	184	-26.7
총 수입	14,808	-14.7

자료 : KITA(MTI 4자리)

2. 한·러 투자동향

□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진출

- 한국의 대러 투자는 2017년~2021년 동안 회복세였으나 2022년에 다시 하락
 - 산업별로 2022년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제조업은 3,400만 달러로 전체 대러 투자의 57%를 차지, 도소매업은 700만 달러로 11.9% 차지

[연도별 대러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15~'22)]

[분야별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금액('20~'22)]

연도	법인수	투자금액	세계비중
'15	18	178	0.58
'16	18	93	0.23
'17	21	82	0.18
'18	25	95	0.18
'19	29	99	0.15
'20	15	105	0.18
'21	23	130	0.17
'22	6	59	0.08
합계	155	841	0.19

분야	'20	'21	'22	'22점유
제조업	13	102	34	57
농업·임업·어업	29	4	1	1.7
부동산업	1	2	0	0
도소매업	11	8	7	11.9
정보·통신업	0	0	1	1.7
운수·창고업	1	-	0	0
합계	105	130	59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K-EXIM)

- 對러 한국투자 누계액은 약 3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41% 수준, 2022년에는 러-우 사태 영향으로 전체 해외 투자의 0.08% 수준에 그침

구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단위: 백만 USD)	세계비중
전체	657	3,084	0.41
1990	2	19	1.6
(중략)			
2010	22	337	1.31
2011	34	101	0.34
2012	16	109	0.37
2013	27	122	0.39
2014	21	116	0.40
2015	18	178	0.58
2016	18	93	0.23
2017	21	82	0.18
2018	25	95	0.18
2019	29	99	0.15
2020	15	105	0.18
2021	23	130	0.17
2022	6	59	0.0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러시아의 對한국 투자진출

- 2022년까지 누적 신고금액 기준, 러시아의 우리나라 투자 누적액은 약 1억9650만 달러를 기록, 對한 투자가 저조한 원인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대기업들이 주로 CIS 및 유럽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으로 보임

[연도별 러시아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 건, 천 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단위: 천 USD)
2010	52	5,054
2011	49	8,764
2012	55	95,159
2013	52	7,718
2014	35	29,309
2015	17	5,621
2016	23	3,970
2017	14	7,830
2018	19	5,537
2019	24	2,826
2020	13	4,128
2021	33	3,387
2022	73	17,231
총계	459	196,53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통계

- 2010~2022년까지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신고금액 누적기준으로 제조업이 5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42.7%를 기록함

[2010년-2021년 상반기 업종별 對韓 투자 비중]

(단위 : 건, 천 달러, %)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비중(신고금액)
제조업	34	102,395	52.1
서비스업	421	83,853	42.7
농·축·수산·광업	3	10195	5.2
건설업(전기, 수도 등)	1	92	0.05
총 계	459	196,535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IV. 상트페테르부르크 개황

1.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반 개황

위치	발트 해 핀란드만 동쪽 끝 네바 강 하구 델타지역에 위치 ※ 북위 59° 57" 동경 30° 19"
면적	1,439km ²
기후	해양성 기후와 서시베리아의 대륙성 기후가 교차하여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큰 편이며 연중 200여 일간 눈 또는 비 ※ 백야현상 : 6월 말경에는 낮이 19시간 지속되며 나머지 5시간도 초저녁 밝기(5월 중순~7월 중순)
기온	1월 평균 -6.3도, 7월 평균 18.1도
강수량	연평균 620mm
인구	5,361,900명 (2022년 8월 기준) ※ 모스크바,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한국과의 시차	- 6시간

2.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유럽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 도시로서 1703년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 러시아의 유럽으로 향한 창 역할(시 성립일 : 1703년 5월 27일)
- 1712년부터 1918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으며 러시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러시아 3대 혁명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서 발생
※ 러시아 3대혁명 : 1905년 “피의 일요일” 혁명 / 1917년 2월 : 부르주아 혁명(차르 정권 붕괴 및 케렌스키 임시정부 수립) /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쟁취한 볼셰비키 정권은 1918년 수도를 모스크바로 이전하였으며 1924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레닌의 도시’라는 의미의 ‘레닌그라드’로 개칭
- 1991년 소련이 와해된 후 엘친 대통령은 공산당 활동 정지 및 공산당 재산 압류를 시행하면서 시 명칭을 ‘레닌그라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환원

3. 상트페테르부르크 특징

□ 북방의 베네치아

- 40개의 도시내 운하가 있으며(운하총연장 : 217.5km), 583개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중 20개는 도개교
※ 네바강 범람 횟수 : 지난 300년간 288회 / 최고수위 : 4.2m(1824.11.7)

□ 유럽으로 열린 창

- 모스크바에 이어 러시아 제2의 도시로서 1712년부터 1917년 볼셰비키 혁명전까지 약 2세기에 걸쳐 제정러시아의 수도로서 러시아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
- 제정러시아는 물론 소련시기에도 서유럽 문명을 흡수하고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 수행해 왔으며, 아시아적이며 슬라브 민족의 역할과 문화를 강조(Slavophiles)해 온 모스크바와 달리 서유럽 문화를 강조(Westerners)하는 성향

□ 러시아의 문화 수도

- 문학에 있어서는 푸슈킨, 로모노소프, 베르자예프, 도스토예프스키, 고골 등과 러시아 음악의 거성 차이콥스키 등을 배출하였으며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 피의 성당, 여름궁전, 겨울궁전, 성 이삭 성당 등 러시아 건축 발전에 기여
- 1990년 UNESCO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항쟁의 도시

- 2차대전 중 독일군이 당시 레닌그라드를 900일간(1941-1943)에 걸쳐 공략 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독일패전의 한 원인, 80만명 희생

4.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치 및 행정제도

□ 정치제도

- 시장 : 모스크바와 함께 연방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시장은 4년 임기로 대통령의 지명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임명
 - ※ 푸틴 대통령은 2004.9월 지방정부 수반(주지사, 대통령 등)에 대한 직선을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연방의 통제를 강화
- 시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세관, 세무행정, 이민정책부터 도시 전략발전 등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 현 시장 : 알렉산드르 베글로프(Alexander Beglov) /1956년 아제르바이잔 출생, 레닌그라드 건축대학교 졸업) 2019. 9. 18 취임~현재
- 시 의회 : 시의회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총 의석수 5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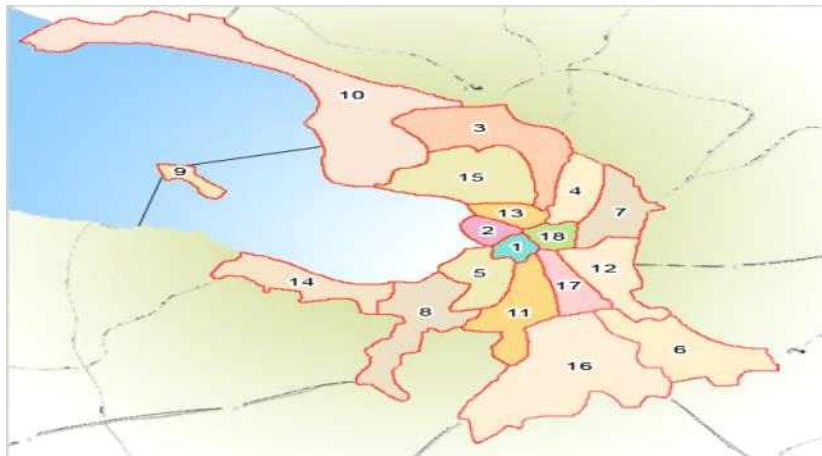
□ 시 정세 일반

- 푸틴 대통령 등 현 러시아 정·관계 지도부 및 재계인사 다수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서 소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맥”이 연방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구축
 -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마트비엔코 상원의장(2011년~)은 2003-2011년에 걸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을 역임한 바 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맥” 정치·관료 엘리트들은 일찍이 서유럽 문명권에 노출되어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향과 표트르 대제의 “강력한 러시아” 전통을 이어 받아 민족주의적 성향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평가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와 레닌그라드주의 통합문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정부는 행정과 경제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레닌그라드 주와의 통합을 주장하여 갈등을 표출
- 2008년 말 푸틴 총리가 당시 마트비엔코 시장에게 동 통합 논의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태이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용토지가 크게 부족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동 통합안을 언제든지 재차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또 다른 이슈는 개발 문제로, 시정부는 연방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 부족과 역사유물 보호지역으로서의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지위 등으로 많은 애로가 있음

□ 행정구역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행정구역분류 상 18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9개 행정 시, 21개 소도시(town)으로 구성
 - 9개 행정시 : 상트페테르부르크, 콜피노, 푸쉬킨, 페테르고프, 크론슈타트, 로모노소프, 세스트로레츠크, 파블로프스크, 젤레노고로스크
- 18개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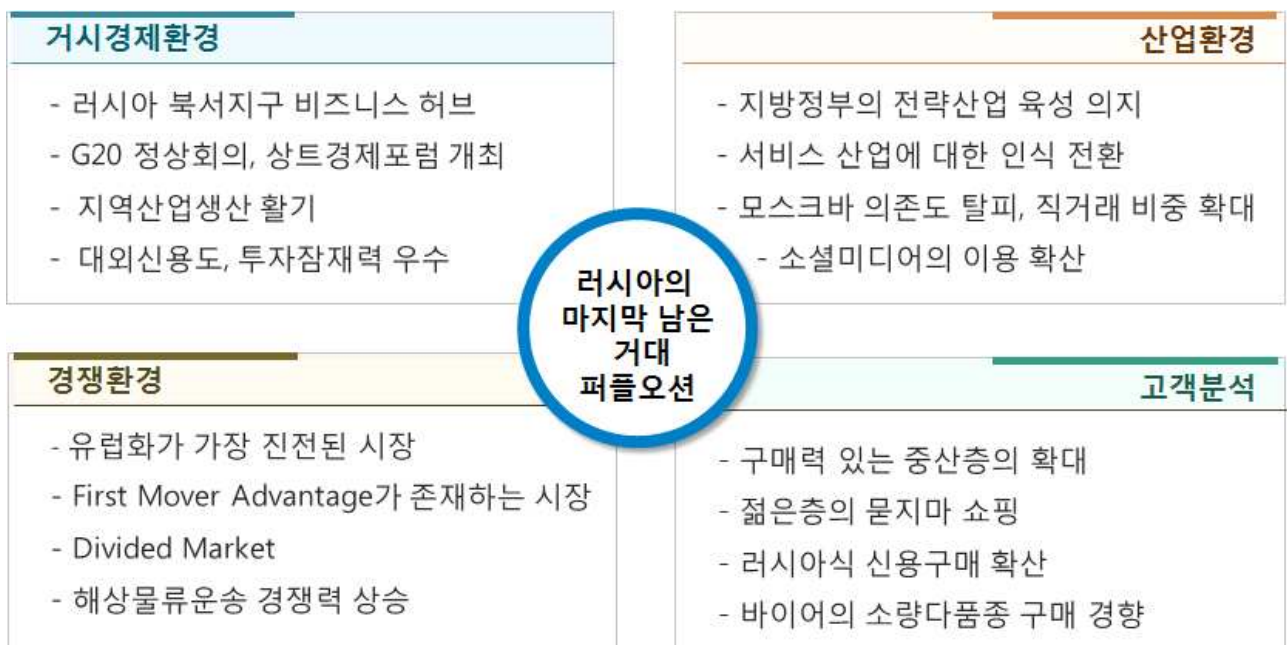
- | | |
|------------------|---------------|
| ① 아드미랄제이스키 구역 | ⑩ 쿠로르트니 지역 |
| ② 바실리오스트로프스키 구역 | ⑪ 마스코프스키 지역 |
| ③ 빅보르그스키 지역 | ⑫ 네프스키 지역 |
| ④ 칼리닌스키 지역 | ⑬ 페트라그라드스키 지역 |
| ⑤ 키라프스키 지역 | ⑭ 페트라드바르초빅 지역 |
| ⑥ 콜핀스키 지역 | ⑮ 프리모르스키 지역 |
| ⑦ 크라스나그바르제이스키 지역 | ⑯ 푸쉬킨스키 지역 |
| ⑧ 크라스나셀스키 지역 | ⑰ 푸룬진스키 지역 |
| ⑨ 크론슈트스키 지역 | ⑱ 첸트랄니 지역 |

5.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 주요 경제지표

지역총생산(GRP)	1,281억 달러 (2021) *1달러 73.65루블 기준
1인당총생산(GRP)	23,821달러 (2021) *1달러 73.65루블 기준
월평균 임금	1,163달러 (2023.1월) * 80,112루블 ** 1달러 68.87루블 기준
실업률	2.5% (2022.11월)
인플레이션	11.51% (2022.12월)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투자 및 교역 (2021년 기준, 2022년 러-우 사태로 외국인 투자 중단)

-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17년 59.1억불, 2018년 65억불, 2019년 75억불, 2020년에는 68억불의 투자를 기록
 - 러시아 전체의 3.3% 차지
- 2005년 도요타자동차를 선두로 닛산, 포드 등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지 공장을 건립하였으며, 현대자동차도 2010년에 북서쪽 카멘카에 공장을 완공, 2021년에 전 GM공장을 인수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내 자동차 산업 선두주자로 부상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 부품생산부터 조립에 이르는 쉘 공정을 갖춘 유일한 외국계 자동차 공장으로, 2011년 1월 양산 시작, 3교대 연산 20만대 규모, 2020년 2월 누적 생산량 150만대 달성
- 현지 생산 중인 현대 Solaris는 2015년도 11만 5천 대, 기아 New Rio는 9만 7천 대 판매로 러시아 차종 Lada Granta에 이어 러시아 내 판매차종 2, 3위, 외국 차종 판매 순위 1,2위를 기록. 2016년 6월부터 소형 SUV 차종인 Creta, Rio X-Line 등 양산

- (국내기업 투자 동향)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2011년부터 가동 시작하여 현재 연 20만대 규모로 4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음.

현대자동차 러시아 생산법인 개요

위 치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북서쪽 Kamenka 지역
 면 적 : 총 200ha(공장부지 15만평, 건물 1.6만평)
 투자규모 : 약 5.5억불 규모
 양산시기 : 2010년 하반기 시범 생산, 2011.1월 양산, 2020. 2월 150만대 양산
 생산차종 : 솔라리스, 뉴리오, 크레타(소형 SUV), 리오 X-Line 등
 생산능력 : 연간 22만대 규모
 채용규모 : 현지 고용원 약 2,000여명 채용
 특 징 : 부품생산부터 조립에 이르는 쉘 공정을 갖춘 러시아내 유일한 외국계 자동차 공장
 ※ 현대자동차 14개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및 현지 고용원 약 3,000명 수준

- 호텔롯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 번화가인 넵스키 대로에 약 1,000억원을 투자, 6층 건물 154개 객실 규모의 ‘롯데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립
- CJ제일제당, 러시아 현지 냉동식품 업체 300억원에 인수
 - CJ제일제당은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인 라비올리(Ravioli)의 지분 100%를 약 300억원에 인수 완료했으며, 향후 1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통해 공정 현대화 및 신규 생산라인 증설등을 수행할 예정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 업체는 1994년에 설립되어 러시아 만두인 펠메니를 생산, 지역 브랜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업체임. 매출은 약 450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교역 동향) 2021년 한국-북서관구 교역량은 총 50억 8천만달러로 북서관구 교역 순위 중 5위를 차지
 - 전체 교역량 중 5% 차지, 수출 44억 6천만달러, 수입 6억 2천만달러
 - * 주로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
 - 2022년 교역내역 러세관 발표 중단

< 2021년 러시아 북서관구 주요수입국 및 수입품목 >

국가명	수입액(천 달러)	수입비중(%)	주요수입품목
중국	8,250,369	13.2%	기계류, 차량, 의류, 플라스틱, 철강제품
네덜란드	575,097	11.8%	소비재
독일	3,210,338	5.9%	자동차, 기계류 등
미국	2,053,856	5.6%	기계류, 자동차 등
한국	4,465,456	4.9%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
핀란드	1,442,109	4.4%	보일러, 종이류, 철강류
벨라루스	1,871,436	4.4%	식용품, 자동차부품 등
영국	461,592	3.8%	화장품 등 소비재
브라질	1,231,987	2.8%	농수산물 등
이탈리아	1,478,187	2.5%	플라스틱, 차량, 커피 등

자료원 : 북서관구 세관

□ 지역경제 특성 및 산업구조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지역총생산(GRP)은 러시아 경제규모의 약 7.78% 차지(2021)
- 북서연방지구 최대의 산업중심으로서 북서연방지구 총 산업생산의 24.5%를 점유하며, 제조업이 산업생산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북서연방지구 소비재의 대부분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산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북서연방지구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집약산업(전기 터빈, 디젤엔진, 자동차, 전자제품, 트랙터, 선박제조, power plant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서관구 의약품의 90%, 제과제품 59%, 낙농제품의 41%, 제화제품의 51% 의복생산의 43% 등을 생산

(1) 제조업

- 제조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세수의 28% 및 전체 고용인구의 2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산업 다변화를 주도

(2) 정보.통신

- 정보.통신 분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중 하나로서 페테르부르크의 정보.통신시장 규모는 모스크바에 이어 러시아에서 2위를 점유

(3) 교통

-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최대의 교통중심으로서 해운, 수로(River shipping), 철도, 항공, Trucking, 파이프라인 등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15개의 지역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1개의 공항과 5개의 철도역 보유

6. 한 -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계

□ 한국 공관 개설 역사

- 1896.5 민영환 특사사절단 최초 방러(상트페테르부르크에 3개월 체류)
※ 고종은 아관파천(1896.2.11 ~ 1897.2.20) 후 민영환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특사로 파견
- 1897.5 민영환 주러 초대 특명전권공사 부임(5.13 신임장 제정)
※ 민영환 공사(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 겸임)는 1897.5.19 영국 향발
- 1897.9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한국어강좌 최초 개설
※ 공관 개설요원으로 잔류한 김병옥 서기관이 강의전담
- 1901.3 이범진 주러 상주공사 임명(겸임공사 해제)
- 1905.11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관 신분 박탈, 이범진 공사는 각국 주재 공사 소환령에 불응
- 1905 이범진 공사 스타니슬라바 3급 훈장 수여
- 1907 이위종(이상설, 이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
- 1911.1 이범진 공사 자결(체르노레첸스카야 5번지)
- 2002.2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 개설(명예총영사 : 김기음)
- 2006.3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 폐쇄 및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관

□ 자매결연 체결도시

- 상트페테르부르크 - 대구광역시 자매결연 도시 (1997)
- 상트페테르부르크 - 충청북도 우호협력협정 (2008.5.13)
- 상트페테르부르크 - 부산 자매결연 도시 (2008.6)
-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슈타트 시 - 인천시 우호협정 (2010.9.6)

V. 북서관구 개황

1. 일반 개황

□ 북서관구 위치

- 북서연방지구는 바렌츠해를 통해 북극해와 접하고 있으며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등 러시아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8개 연방지구 중 서유럽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

※ 북서연방지구 면적 : 1,687,000km²(대한민국의 16.8배, 러시아 연방의 9.9%)

□ 북서관구 기후

- 발트 해, 핀란드 만과 접해 여름은 해양성 온난기후를, 서시베리아와 근접해 겨울에는 대륙성 혹한기후가 혼재하는 기후
 - 연평균 최고 기온 : 영상 19.1℃ / 연평균 최저기온 : 영하 11.2℃

□ 인구 및 민족구성

- 북서연방지구 주민 대부분은 러시아인이며 코미인, 카렐리아인, 사아미인, 네네츠인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
 - 인구 : 13,917.2 천명 (2023.1월 기준 / 러시아 전체인구의 9.45%)

< 지역별 인구분포(2023년 1월) 기준 >

지역	인구 (천명)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5,367.9
카렐리야 공화국	599.1
코미 공화국	734.3
아르хан겔스크 주	1,069.7
볼로그다 주	1,139.4
칼리닌그라드 주	1,033
레닌그라드 주	2,066
무르만스크 주	657.9
노브고로드 주	575.9
프스코프 주	587.5
네네츠 자치구	44.5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 주요 도시

- 북서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소재지 : 상트페테르부르크(537만명)
 - 레닌그라드주 정부청사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
 - ※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및 CIS 의회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해 있으며 Gazprom 본사가 이전하는 등 연방 중심 도시로서의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중요성이 증대
- 주요도시 : 아르항겔스크(35만명), 무르만스크(28만명), 칼리닌그라드(44만명), 노브고로드(22만명), 볼로그다(31만명), 체레포베츠(30만명)

□ 북서관구 지역특성

- 러시아 북서관구는 조선, 방산, 기계공업, 목재가공, 농산물가공, 자동차 산업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이며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와 함께 러시아 첨단산업의 중심지
 - 러시아 최대 조선소인 Admiralty 조선소와 Vyborg 조선소가 북서관구에 위치해 있으며 첨단산업연구단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폴리테크닉 대학교를 보유
 - 바렌츠해를 포함하여 북극지역에 다량의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현재 무르만스크 북동쪽 600km 지역에 위치한 바렌츠해에서 Shtokman 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 중
- 러시아 북서관구는 지리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인접해 있어 전통적으로 동 국가들과 실질경제협력이 매우 활발하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을 공유

❑ 북서관구 역사

- 슬라브족이 10세기경 북서부 지역에 출현하기 전까지는 핀란드와 스웨덴인들이 동 지역에 거주
 - 핀란드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스웨덴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바이킹 주도하에 교역에 종사하면서 서유럽과 콘스탄티노폴을 잇는 중간 역할
- 10세기경 키예프 공국 및 모스크바 공국과 함께 동슬라브족의 중심 공국으로 부상한 노브고로드 공국은 Radoga 호수 인근지역을 거점으로 북서부 지역으로 진출, 영토를 발트 해 연안까지 확장
 - 몽고지배를 피한 노브고로드 공국은 1478년 모스크바 공국의 이반 IV세에 의해 합병될 때까지 북상을 지속
- 1703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함으로써 북서관구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표트르 대제는 1709년 폴타바 전투에서 스웨덴에 승리하고 1714년 발트 함대가 스웨덴 함대를 격파한데 이어 1721년 Northern War를 통해 스웨덴을 최종 격퇴시키고 Nystadt 조약을 통해 발트지역 전역을 합병
 - 표트르 대제는 동 조약 체결 후 연차적으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인그리아 및 카렐리아를 점령하여 발트 해와 핀란드만 전역을 장악, 러시아가 향후 북서관구 전체를 통합하는 기반 마련
- 알렉산더 1세는 1809년 스웨덴과 전쟁에서 재차 승리, 카렐리아 지역을 넘어 핀란드를 합병하였으며, 이로써 러시아는 발트 해와 핀란드만 및 바렌츠 해 전역을 확고히 장악하고 현재의 러시아 북서관구에 대한 스웨덴의 영유권은 완전히 종식
- 1917년 볼셰비키 혁명직후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는 1918년 독립함으로써 러시아는 1945년 2차 대전 종전 때까지 발트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
-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를 합병, 핀란드인들은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북서관구에서 완전 철수
-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발트3국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여타 공화국과 함께 독립함으로써 러시아 연방의 북서지방 영토는 현재의 북서연방지구만 남음

2. 북서관구 정치 개황

□ 행정조직

- 북서연방지구는 1개 연방시, 7개 주, 2개 공화국 및 1개 자치구로 구성 (총 11개 연방주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베글로프 시장 (Alexander Beglov)
카렐리아 공화국	아르투르 파펜치코프 수반 (Artur Parfenchikov)
코미 공화국	블라디미르 우이바 수반 (Vladimir Uiba)
레닌그라드 주	드로즈덴코 주지사 (Alexander Drozdenko)
볼로그다 주	쿠브시니코프 주지사 (Oleg Kuvshinnikov)
아르한겔스크 주	치불스키 주지사 대행 (Alexander Tsybulsky)
칼리닌그라드 주	알리하노프 주지사 (Anton Alikhanov)
무르만스크 주	치비스 주지사 (Andrey Chibis)
노브고로드 주	니키티 주지사 (Andrey Nikitin)
프스코프 주	베데르니코프 주지사 (Mikhail Vedernikov)
네네츠 자치구	베즈두드니 수반 대행 (Yuri Bezdudny)

- 대통령 전권대표
 - 대통령 전권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서 관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연방주체-정부 간 정책 및 상충하는 이해를 조율, 조정하고 주지사 등 지방정부의 정치.관료 엘리트들에 대한 견제 기능도 수행
 - 북서연방지구 전권대표는 Guzan A.V.가 수행 중 (2018.11.7.~현재)

□ 지역 정세 일반

-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북서연방지구 지역은 17세기말부터 러시아 근대화 위한 서방으로 향한 창구 역할을 하여 왔으며 동 지역 출신 인사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편, 러시아 민족주의 강조 경향
- 푸틴 총리(前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러시아 정치정세 전반이 크게 안정되면서 북서연방지구도 1990년대 지방 정치.관료 엘리트 임명 및 경제운영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일사불란한 정책 공조

3. 북서관구 경제 개황

□ 주요 경제지표

<연도별 지역 총생산 (GRP), 단위 : 백만 루블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북서관구	9,865,793.3	10,522,568.9	10,628,000	16,611,895
카렐리야 공화국	300,977.1	325,184.7	319,000	447,146
코미 공화국	696,242.2	720,665.3	612,000	857,013
아르한겔스크 주	545,317.6	559,051.1	559,000	648,582
볼로그다 주	615,647.7	630,137.7	636,000	1,009,917
칼리닌그라드 주	493,302.4	519,724.5	518,000	675,000
레닌그라드 주	1,147,644.4	1,224,514.1	1,246,000	1,481,187
무르만스크 주	521,051.5	616,909.0	790,000	1,083,779
노보고로드 주	259,255.8	273,543.5	280,000	342,069
프스코프 주	180,730.3	197,129.6	202,000	219,948
네네츠 자치구	320,405.7	331,115.4	230,000	406,838
상트페테르부르크	4,785,218.6	5,124,594.0	5,236,000	9,440,411

<월 평균임금 (2022.9월), 단위 : 루블, USD (1USD=68.87루블 적용) >

구 분	월평균 임금(루블)	달러 환산액
북서관구 전체	67,834	985
상트페테르부르크	80,770	1173
카렐리야공화국	52,996	770
코미공화국	64,254	933
아르한겔스크주	62,097	902
볼로그다주	49,502	719
칼리닌그라드주	44,557	647
레닌그라드주	56,586	822
무르만스크주	79,308	1152
노브고로드주	46,173	670
프스코프주	38,070	553
네네츠자치구	97,159	1411

□ 지역경제특성 및 산업구조

- 북서관구 2021년도 GRP 성장률은 12.5%로서 동기 대비 러시아 전체 경제성장률 7.3%에 비해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경제규모의 약 13.6%를 점유
 - 조선, 방산, 기계공업, 목재가공, 농산물 가공, 자동차 산업 및 관광산업 등이 고르게 발달한 한편,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러시아 연방 경제 정책 핵심인 산업 다변화를 주도
 - ※ 선박건조 규모는 러시아 연방 내 1위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와 조선 분야 협력 전망이 매우 밝은 지역
 - 바렌츠 해 등 북극지역에 원유, 가스 등 러시아 보유자원 매장량의 90%가 집중되어 있으며, 러시아 최대 에너지 국영기업 Gazprom 자회사 Gazprom Neft는 페초라 만에 세계 유일 북극 석유시추플랫폼(ice-resistant fixed platform) 프리라즈롬나야를 2013년부터 가동 중
- 북서관구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철도, 항만, 도로 등을 통한 물류인프라가 크게 발달

< 북서관구 지역별 주요산업분포 >

지 역	산 업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IT산업 건축, 식료품, 소비재, 관광, 레저, 기계설비, 중장비
카렐리야 공화국	목재가공, 펄프, 하천운송 시스템
코미 공화국	천연자원
아르한겔스크주	목재가공, 펄프
블로그다주	제철, 목재가공, 제지, 화학, 기계제작, 식료품, 가금, 농업
칼리닌그라드주	조선, 전자제품, 어업
레닌그라드주	기간산업 인프라 구축, 농산물 가공, 목재, 펄프, 보일러
무르만스크주	어업, 조선, 항만, 철도 도로 건설 프로젝트
노브고로드주	농산물 가공, 소비재, 화학제품
프스코프주	기계제작, 목재가공, 건축자재, 낙농, 아마
네네츠자치구	천연자원, 식품(통조림)

□ 에너지 자원 현황

- (자원현황) 러시아 북서관구 에너지자원은 네네츠 자치구, 코미공화국, 페초르스키해, 바렌츠 해에 집중
 - 바렌츠 해(55%), 네네츠 자치구(26%), 코미공화국(12%), 페초르스키해(7%) 순으로, 원유는 남부(코미 공화국, 네네츠 자치구)에, 천연가스는 북부(바렌츠 해)에 주로 분포
 - 네네츠 자치구의 경우 러시아 중 원유 매장량에 있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산업이 자치구 경제의 95%를 차지
 - 코미공화국의 경우 원유.가스 이외에도 티타늄, 세일 오일, 희금속, 희토류 상당량 매장

- (개발실태 및 전망) 네네츠 자치구의 경우 연 1,200만톤의 원유를 상업생산하고 있는데 동 생산량은 전체 추정 매장량의 2%에 불과함. 바렌츠 해의 슈토크만 가스전, 프리라즈롬나야 오프쇼어 플랫폼 등이 운영되고 있음.
 - 혹독한 기후 조건,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 문제, 육상, 해상 운송로 미비 및 운송수단 부족 등 인프라의 부족이 개발지연의 가장 큰 이유
 - 또한 원유.가스전 개발, 쇄빙선 및 LNG선 제작 등 Middle stream 및 Down stream 사업은 연방정부(에너지자원부), Rosneft, 가스프롬, transneft 소관 사항으로 지방정부의 관여폭이 극히 제한적인 것도 개발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임.
- 코미공화국의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확인된 원유.가스전 대부분은 이미 채굴 가능량의 상당수가 채굴되었으며, 풍부한 목재자원(지역 면적의 70%)을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공장 프로젝트 등 대체에너지 사업을 개발하고 있음.

VI.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 한국과의 시차 : -6시간 (GMT + 03:00)

□ 기 후

- 1년 중 약 5개월(11~3월)이 겨울이며, 봄과 가을은 극히 짧음
- 9월의 낮기온은 15도 내외로 선선하고 한국의 늦가을과 같은 날씨로 외출 시 외투나 코트를 입어야 함. 그러나 실내는 난방이 잘 되어 덥고 건조하므로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 실내외 온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전 압

- 220V / 50Hz (콘센트 모양 동일, 한국 가전제품은 바로 사용 가능, 한국 60Hz)

□ 비 자

- 사증면제 :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은 러시아에 무사증으로 연속하여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 내 총 90일 체류 가능
(한-러 사증면제협정 제2조제3항)
- 상용비자 : 1년에 18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나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불가
(입국 회수는 제한 없음)
- * (코로나 방역관련) 22.10.21.부터 러시아 입국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별도 격리 없음
-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한국은 러시아의 48개 비우호국에 포함, 현재까지 사증면제(60일 이내 체류)는 유효하나 현지 초청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상용비자(HQS) 취득이 전년 대비 어려워짐

출입국 유의사항

- 출입국카드(Migration Card)는 입국 시 세관원으로부터 수령 후 호텔에서 거주등록을 한 다음 잘 보관하여 출국 시 제출토록 함. 또한 현지 체류 시 여권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녀 경찰 등의 불시검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

<입국 신고서 예시>

«А» (Въезд/Arrival)		Республика Беларусь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Republic of Belarus	
Миграционная карта	Серия/Serial	05 06	
Migration Card	№	0419304	
Фамилия/Surname (Family name)		H O N G	
Имя/Given name(s)		G I L D O N G	
Отчество/Patronymic			
Дата рождения/Date of birth		Пол/Sex	
День/Day	Месяц/Month	Год/Year	Муж./Ma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Жен./Female <input type="checkbox"/>
0 1	0 1	1 9 6 0	
Гражданство/Nationality		K O R E A N	
Документ удостоверяющий личность		Паспорт/Passport	
Passport or other ID		CEN 235384	
Цель визита (нужно подчеркнуть):		Сведения о приглашающей стороне	
Purpose of travel (to be underlined):		Name of host person or company, locality:	
Служебный/Official, Туризм/Tourism, Коммерческий/Business, Учеба/Education, Работа/Employment, Частный/Private, Туризм/Tourism		TRAVEL AGENCY PUSHKIN STREET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Duration of stay:		Подпись/Signature:	
C/From: 02.12.2007		До/To: 06.12.2007	
Служебные отметки/For official use only		Hong	
Въезд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Республику Беларусь/		Выезд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Date of arrival in the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Belarus		Date of departure from the Russian Federation/Republic of Belarus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
4. 성별
5. 국적
6. 여권번호
7. 비자번호(비자에 표시)
8. 초청자
9. 입국일 및 출국일
10. 소지인 사인

택시

- 최근 러시아는 Yandex Taxi, CITImobil, UBER 등의 콜택시 앱을 이용한 택시 이용이 대폭 늘어남. 해당 택시 앱은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예약과 카드 자동 결제가 가능함 (러시아 심카드로만 사용 가능)

□ 전화 거는 법

- (국제전화) (호텔의 경우 외부 연결번호 9를 누르고) 810을 누른 후 국가번호 (한국은 82) 및 나머지 번호를 누르면 연결됨.
- 한국의 지역번호 및 이동통신의 경우 최초 0을 제외한 번호를 눌러야 함.

예시 : KOTRA 본사 전화 (02-1600-7119)	+9-810-82-2-1600-7119
국내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9-810-82-10-1234-5678

- (시내전화) 호텔이 지정한 외부 연결번호(9)를 누르고 시내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됨.
- (시외전화) (호텔의 경우 외부 연결번호(9)를 누른 후) 8을 누르면 시외전화 신호음이 들림.
- 그 다음 해당도시 코드(Moscow의 경우 495) -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 (핸드폰) 러시아 전화번호는 국가번호 7, 다음 지역번호 (상트페테르부르크 812, 모스크바 495 등), 이후 7자리 정도의 번호로 구성됨.
-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대신 9로 시작하는 3자리 번호가 사용됨.

예시 : +7-911-123-4567	러시아 핸드폰 번호
+7-812-244-1341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사무실 번호
+7-495-258-1627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사무실 번호

□ 환율 및 환전

- 현지에서는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루블(Rouble: RUB) 환전 필요
- 환 율 : 달러당 약 77루블 선('23년 3월 기준)
 - * 지폐 : 5,000; 2,000; 1,000; 500; 200; 100; 50; 10 루블 등 총 8종류
 - * 동전 : 10루블; 5루블; 1루블; 50; 10; 5; 1 코페이카(Kopeica)의 동전
- 환전장소 : 은행, 호텔, 거리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가능
 - * 환율은 큰 액수가 아닐 경우 호텔 내 환전소를 이용하는 게 정확하고 안전
-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비자, 마스터카드로의 결제 및 현금 인출이 불가함.
Union pay는 사용 가능하며 현지 은행 카드 '미르'를 신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한식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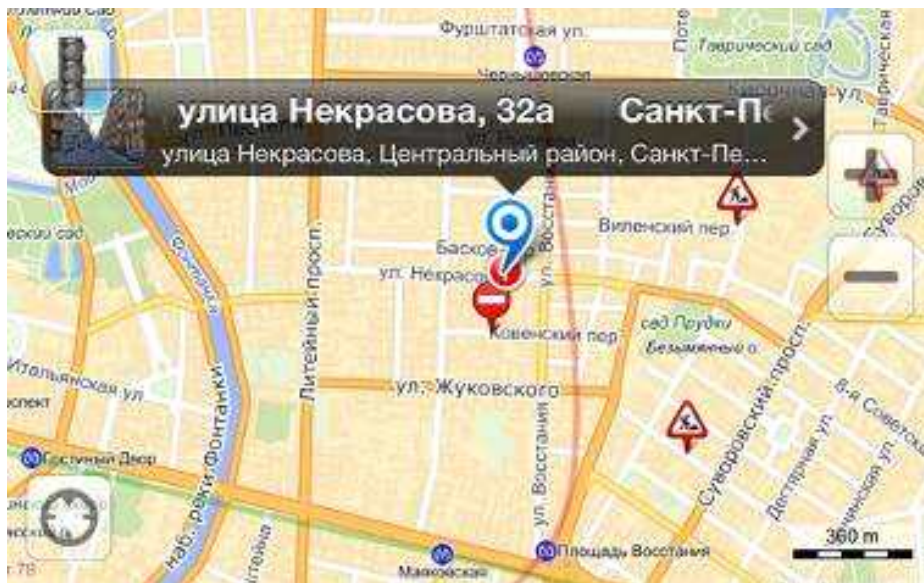
식당	전 화	주 소
엄마네	+7-911-929-0721	Ул. Гороховая 3 (Ul. Gorohovaya 3)
코리아나	+7-812-915-4226	Ул. Варшавская 23 (Ul. Varshavskaya 23)
송학	+7-931-397-5947	Ул. Вознесенская 15 (Ul. Vosnesenskaya 15)
막걸리	+7-921-855-8500	Ул. Лиговский 25 (Ul. Ligovsky 25)
밥집	+7-812-230-4574	Ул. Куйбышева 7 (Ul. Kuibysheva 7)
	+7-812-273-8803	Ул. Маяковская 1 (Ul. Mayakovskaya 1)
서울명가	+7-911-006-70-80	Ул. Коннолахтинская 4 (Ul. Konnolakhinskaya 4).

VII. 무역관 및 주요기관 연락처

□ 무역관 연락처

- 주 소: 191014 Nekrasova 32-a, St.Petersburg, Russia
- 전 화: +7(812) 244-1341
- 이메일: info@kotraspb.ru

□ 무역관 약도



□ 무역관 오시는 길

-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은 총영사관 건물(전면에 국기 게양) 4-5층에 위치하고 있다.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1.6km, 지하철 Mayakovskaya, Ploshadi Vosstaniya 역에서 1.1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시 15~20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공항에서부터 요금은 20달러 (약 1,400루블) 정도이며, 약 40 ~ 50분 소요되고, 거리는 20.2km이다.

□ 주요 연락처

구분	성명	E-MAIL	연락처
무역관	유승호 관장	shyoo@kotra.or.kr	+7-812-244-1341(201)
	황연수 과장	soo1123@kotra.or.kr	070-7001-0605
	Evgeniy Shipachev	evgeniyshipachev@gmail.com	+7-812-244-1341(203)
	Anna Romashchenko	annar@kotraspb.ru	+7-812-244-1341(205)
	Natalia Timoshina	natalia.t@kotraspb.ru	+7-812-244-1341(206)
	Elena Lukianova	elenal@kotraspb.ru	+7-812-244-1341(207)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민원실	-	+7-812-448-1500
	비상전화	-	+7-905-255-5496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